



미주꽃동네판
제기호 2024.8.15.(성모승천대축일)

꽃동네의

KKOTTONGNAE: "Flower Village"
in English is community of love and
salvation for the most needy.

*Even if you have only some
strength to beg for food, it is a
gift of God's grace.*

꽃동네 홈페이지 | www.kkot.or.kr

꽃동네 인터넷 방송 | www.kkottv.com

최귀동 할아버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왔으나, 몸은 병들어 무극천다리밀에거적을치고사는걸인이되었다. 그후 40여년 동안 남는 밥만 얻어다가 자기보다 못한 걸인들을 보살피며 살았다.

1976년 9월 12일 오용진 신부(당시 무극천주교회 주임)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 임을 깨달아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꽃동네를시작하였다.

꽃동네 현장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 고귀한 은총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와 인간의 구원이 동일한 실재로서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현되는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며, 오늘도 '벗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소 살고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우리 꽃동네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춧돌을 두고, 오웅진 요한 신부와 최귀동 베드로 할아버지의 만남, 특히 가톨릭 신앙에 몸을 바친 오웅진 요한 신부의 특별한 '하느님 체험'을 머릿돌로 삼는다.

우리 꽃동네는, 가난과 고통으로 소외된 이들과 보잘것없는 이들의 보금자리로서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의 구도자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이란 은총의 기꺼운 도구가 되기 위하여 특히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정을 함께 사는 항구한 사랑의 동반자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의 결핍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여 돌봄으로써, 그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 하느님의 가족이 되도록 돕는 사랑의 중개자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의 결핍을 불러오는 원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 주는 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국가와 인류 사회에 참 행복을 선포하는 사랑의 교육자다.

우리 꽃동네는, 그 이념을 따라 진정한 사회복지사업을 계발하고 실천할 봉사자와 전문

인재를 키우며,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가꾸며 거두어들이는 일꾼이 되게 하는 사랑의 전문가다.

우리 꽃동네는 온 인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사랑의 선포자다,

마침내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이신 하느님께 돌아감으로써 인류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사랑의 특별한 현실"로 남고자 한다.

2016년 12월 27일 개정



꽃동네 심벌

꽃동네 심벌은 창설자 오웅진 신부가 서품 30주년 이 되는 2006.5.3.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여 만들었다. 심벌의 흰색 바탕은 성부이고, 가운데 큰 별은 성자, 빛은 성령을 의미한다. 큰 별에서 생긴 4개의 작은 별은 꽃동네의 인적구조인 꽃동네회원, 예수의 꽃동네형제회, 예수의 꽃동네자매회, 예수의 꽃동네재속회를 의미하며, 동시에 사도직인 복지(종합사회복지시설), 행복(사랑의연수원), 교육(꽃동네대학교 · 꽃동네 학교), 사랑(사랑의영성원)을 의미한다.

미주 꽃동네를 안내합니다.

LA 린우드꽃동네 (LA Lynwood Kkottongnae)

LA 린우드꽃동네는 미주 지역에 진출한 첫 공동체로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LA 린우드꽃동네는 징검다리이다.' 이 말씀은 창설자 신부님께서 기도 중에 받은 하느님의 메세지로 테메쿨라, 뉴저지, 조지아, 캐나다에 진출하였고 더 나아가 중남미 지역(아이티, 파라과이, 파나마, 자마이카,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온두라스)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 LA 린우드꽃동네는 양로원, 노숙인 도시락 나눔, 영적 면담, 기도모임, 피정, 독거노인 방문, 미주 · 해외 꽃동네 기금마련 가라지세일, 등등, 사도직을 수행하며 미주 지역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테메쿨라꽃동네 피정센터 (Temecula Kkottongnae Retreat Center / Camp)

'영혼의 쉼터' 테메쿨라꽃동네(Temecula Kkottongnae, A peaceful Place of the Soul)는 고요함 가운데서 하느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할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하느님을 뵈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숙박인원 60명 ● 캠핑장 300명 ● 식당 70명 ● 카페
- 십자가의 길, 성모 연못, 십자가 산, 뷰 포인트,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산책로, 예수성심 테라스
- 자세한 사항은 www.temeculakkottongnae.org 웹사이트 참조 하세요.

뉴저지꽃동네 (New Jersey Kkottongnae)

뉴저지꽃동네는 미국 동부지역을 위한 '하느님 선물'입니다.

- 10.23.2002 뉴저지꽃동네 축복식
- 7.20.2007 예수성면 성체조배식 및 마마질리 전신실 축복
- 3.10.2010 NJ 옐렌타운 Food Pantry(무료급식허가) 취득 및 지역 급식 봉사 개시
- 11.04.2012 예수의꽃동네재속회 뉴저지 지부 1회 임회
- 뉴저지꽃동네에서는 어르신 돌봄, 홈리스 무료급식, 가족피정, 기도모임, 아이티 물류지원 프로젝트, 동북부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지아꽃동네 (Georgia Kkottongnae)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조지아꽃동네는 아틀란타에 자리잡고 소규모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티와 자메이카 꽃동네 등에 물적지원과 지역사회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선활동을 펴치고 있습니다.

- 조지아꽃동네에서는 양로원, 난민촌 방문, 이웃나눔을 위한 농사, 아이티와 자메이카 물품지원, 기도모임, 피정, 등등, 중동부 지역을 위해 활발하게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꽃동네 (Canada Kkottongnae)

하느님께서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캐나다에 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꽃동네를 세우셨습니다. 캐나다 꽃동네는 재속회원들의 홈리스 도시락 나눔이 선행되어 시작되었고 토론토에서 한시간 넘는 곳에 위치하여 피정의 집을 운영하며 영적 지원, 양로원 방문, 홈리스 도시락 나눔, 등등,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 찬미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꽃동네 회원님과 은인, 꽃동네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7월 한 달은 참으로 많은 비와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꽃동네는 회원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수천 명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꽃동네와 해외 20여 국에 있는 꽃동네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티 꽃동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기도로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오로지 하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성심센터의 건립 목적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의 어제와 오늘

2024년 7월 19일 오전 10시 19분

오웅진 신부

나의 삶은 오로지 하나.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

어제도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지금 나는 이글을 쓰고 있다.

곧 글을 쓰고 나면 일어나 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

나는 행복하다.

어제도 오늘도.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죄가 있든 없든.”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만인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지구촌에 살고 있는 72억 명의 식구 모두가 꼭, 꼭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만 온 인류 공동체는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나부터, 그리고 내 가족, 사회, 국가, 세계 모두가... 하느님께 받은 축복이며 가장 행복한 삶의 전부,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랑하면 사랑이 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죄가 있든 없든.

예수성심센터는 오로지 하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극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만 모아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이루는 데 크게 복이 되는 예수성심센터입니다.

이 모두의 꿈은 오로지 하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1) 꽃동네 회원 배가 운동(꽃동네 한 분 더 인권)에 더 적극 동참해 주시고,

2) 감사예물, 나의 지극 정성으로 더 봉헌해 주시고,

3) 꽃동네 기도회 미사에 한 분 더 모시고 오기를 실천해 주세요.

계속 기도와 협력 바라며,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8월의 문턱에서
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오웅진신부 드림



※ 문의 043-879-0100

※ 계좌(예수성심센터 기금)
우체국 301341-05-000297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알려드립니다



15일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공경하는
여러 축일 중 으뜸이라할 수 있는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올리셨습니다. 당
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1. 2024년 미주꽃동네 분원에 피정

2024년 미주꽃동네 분원에 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꽃동네형제회 신
상현(야고보)수사님, 김준수(베드로)신부님 그리고 예수꽃동네자매회김명심(안
드레아)수녀님이 팀을 이루어 7/12(금)-14(일) 테메쿨라 가정성화피정을 시작으
로 15(월)-16(화)에는 LA린우드꽃동네에서 건너편 성당 강당을 빌어 성령피정을,
17(수)-18(목)은 조지아꽃동네에서, 19(금)-21(일)에는 뉴저지꽃동네분원과 뉴욕
퀸즈성당 성령세미나를 그리고 23(화) 캐나다꽃동네 가정성화피정으로 꽃동네분
원 주변이 영적 잔치의 향연으로 풍성했습니다.

이 피정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예수꽃동네형제회, 자매회 수사, 수녀님과 피
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봉사해주신 재속회원님과 봉사자분들.. 모두모
두 감사합니다. (각분원 페이지 참조)



2. 축하합니다.

미주지역 예수꽃동네 재속3회 CA지부 4기 입회식이 있었는데 이강선(그레고
리오)형제님이 입회하셨습니다. 3월에 첫모임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7월에 입회
식을 위한 미사를 김준수(베드로, 예수꽃동네형제회)신부님의 주례하셨고 먼
저 입회하신 선배들의 축하 속에 미주지역 예수꽃동네재속3회 CA지부 재속
회원으로서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미주 예수꽃동네 재속3회 모집

미주 지역 예수꽃동네 재속 3회원을 LA린우드, 테메쿨라, 뉴저지, 조지아, 애리조나, 씨애틀에서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 속에 꽃동네영성으로 무장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원활동 참조)
꽃동네 봉사자, 회원, 은인 및 꽃동네 관심이 있는 분들을 ‘미주지역 예수꽃동네재속3회’에 초대합니다.
거주지 가까운 꽃동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 CA 지부 : LA린우드꽃동네 문의 전화 : (323)-333-2541
테메쿨라꽃동네 문의 전화 : (951)-595-3298
- NJ 지부 : 뉴저지꽃동네 문의 전화 : (973)676-2364
- GA 지부 : 조지아꽃동네 문의 전화 : (770)871-9177

4. 예수꽃동네 재속3회 CA지부 연피정
미주지역 예수꽃동네재속3회 CA지부 재속회원
들의 연피정이 있었습니다. 이 연피정을 통해 꽃동
네재속회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
도들의 삶을 다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 꽃동네 성령기도회 안내

LA린우드 : 매 월 넷째주 일요일 2:30p.m.

테메쿨라 : 매 월 셋째주 일요일 2:30~5p.m.

뉴저지 : 매 주 목요일 저녁 8시

※ 참석하실 분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6. 사도직 이동

테메쿨라 이항배(필립보)수녀님이 5년의 임기를 마
치고 한국 본원으로 귀원 후 캐나다꽃동네로 소임
을 받아 이동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소임지
에서도 화이팅!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 도네이션과 후원회비, 모바일뱅킹으로 가능

“Zelle”은 미국 내 주요은행 간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간편 결제 어플입니다. 온라인·모바일뱅킹이 가능
하신 분은 사용해주세요. 체크를 사용할 때 payable to에 **Kkottongnae Inc.** 라고 **꼭 Inc. 까지 써주세요.**

“Zell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어플 실행
Send 누르기 → 검색창에 “Phone Number” 입력(기관명 확인)
금액 입력 → 후원 완료(후원회원 가입 시에는 20면 참조)

미주 꽃동네 분원 Zelle(지엘) 수령인 정보(휴대폰)			
분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예금주
LA 린우드꽃동네	323-333-2541	Sr. 김수진 시몬	KKOTTONGNAE INC.
테메쿨라꽃동네	951-395-9546	Sr. 김재은 베드로	KKOTTONGNAE INC.
뉴저지꽃동네	201-956-0299	Sr. 순영희 야고보	YOUNG H SOON
조지아꽃동네	770-871-9177	Sr. 김영희 마리아	YOUNG HEE KIM
회원 관리상 FULL NAME이 꼭!! 필요하오니 FULL NAME으로보내주세요~			

꽃동네 후원 회원 한 분만 더 인권해 주세요.
꽃동네 후원 회원 한 분만 더 인권해 주세요. 회비는 \$1 이상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LA Lynwood, CA

★ 2024년 7월15-16일 LA꽃동네 성령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본원에서 달려오신 예수꽃동네수도자 기도 회팀 (Br.신상현, Br.김준수, Sr.김명심)을 모시고 린우드꽃동네 건너편 St.에미디우스 성당 강당을 대여해서 이틀간 열린 성령피정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기쁘고 행복한 은혜 가득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교자성당 양세용신부님께서는 본당 신자들에게 LA꽃동네성령피정을 적극 홍보하시고 수녀님, 사무장, 사목위원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피정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피정에 임하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Tel. Fax: 310-764-5331
3542 Norton Ave. Lynwood, CA 90262 USA
E-mail: usla@kkot.or.kr

★ 꽃동네 성령피정의 이모저모



면담 및 안수 성령피정 전 봉사자들의 준비기도



접수 찬양



성령 준비한 점심도 맛있게 가족들과 서로를 위한 치유 기도 시간



피정 후 평가 및 마무리



재속회원들의 환대 속에 조지아꽃동네 피정지로 향하는 수도자와 함께

★ 부활한 LA꽃동네 성령기도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LA꽃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창궐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여동안 하지 못했던 성령기도회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주변분들의 기도회에 대한 갈망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4월에 첫 성령기도회가 시작되고 매월 20여명 넘는 신자분들이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찬미시간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기도회가 다시 부활하기까지 이 공동체가 영적인 치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수도자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영적 갈망이 더해졌고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준비시켜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리고 지금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때라는 것을, 그 뜻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초대합니다.

★ 엘바인 평화의 모후 성당 유스 그룹 봉사

엘바인 평화의 모후 성당 유스그룹은 1일 피정을 다녀간 후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발걸음은 친절과 사랑을 가득 안고 노숙인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 LA린우드꽃동네 성령기도 모임 안내

일시 : 매 월 넷째주 일요일 2:30p.m.

장소 : LA린우드꽃동네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에 동참하시거나 후원하실 분 연락주세요.

★ 목요일 오전 9시-12시(도시락 90개)

★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도시락100개)

꽃동네 입소상담 및 문의 : 주변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입소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문의전화 : 사무실 (310)764-5331
Sr. 강필립보 (323)333-3194

Temecula, CA

Tel. : 951-302-3400
37885 Temecula Pkwy, Temecula, CA 92592 USA
ustmc@kkot.or.kr / www.tememculakkottongnae.org

★ 소임 변경

5년동안 테미쿨라 꽃동네에서 소임하셨던 이향배 필립보 수녀님께서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소임을 맡으신 강경남 필립보 수녀님께서 앞으로 린우드 꽃동네와 테미쿨라 꽃동네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성소주일 행사

“참 좋았다 (창세기 1:31)”는 주제로 2024년 5월 5일 제2차 성소주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린우드 꽃동네와 테미쿨라 꽃동네의 모든 수도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였고, 8개 본당에서 총 70여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며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타요타요 코너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테미쿨라 꽃동네를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시간에 어머니와 딸이 서로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도복 체험하는 아이들은 수도자가 된것 처럼 서로를 브라더 라고 부르며 즐거워 하였고, 부모님들도 수도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기회를 보셨으나 아이들에게 기꺼이 양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달고나 만들기, 보물찾기, 신나는 레크, 태아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시간 거리의 먼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 삼대가 모두 함께 참석하는 등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들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은 주

님께 성소로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마음에 성소에 대한 확신과 결심을 가지고 기뻐하였습니다. 귀여운 아이들 중에서도 수녀님 혹은 신부님이 되어서 하느님을 더욱 철저히 따르는 수도자의 삶을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감사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느님 베풀어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



★ 별별피정

“별을 보며 드리는 미사, 찬양이 기도가 되는 시간, 그리고 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7월 5일~7일 2박 3일 여정으로 제주교구 현요한 신부님과 생활성가가수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님과 함께 테미쿨라 꽃동네에서 캠프 형식의 별별캠프 피정을 하였습니다. 캠프에는 25명 참석하셨으나 별별미사에는 총 60여명 함께 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미사를 하였고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피정이 진행 되는 동안 끊임없이 고해성사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아픔을 가지고 모였으나 치유를 청하면서 하느님을 향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찬

양하였고 자연안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테미쿨라 꽃동네의 자연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피정을 마련해 주심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가정성화를 위한 성령피정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 5:3) 라는 주제로 2024년 7월 12일~14일 가정성화를 위한 성령피정을 하였습니다. 어른 60여명, 청소년 15여명, 10명 이상의 봉사자들로 해서 총 90여명이 이번 피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 아래,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은 따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피정을 진행하였고, 그러다 어떤 때는 시간을 맞춰서 가족과 함께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피정 당일에 인근 주변 산에 산불이 나서 꽃동네 입구의 진입로에 오가는 차를 통제 하는 바람에 피정 취소를 알리는 전화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 없는 마음에 모두가 함께 경당에 모여 묵주기도를 시작했고, 묵주기도 5단이 끝날 무렵에는 기적 같이, 우리의 걱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통제되었던 도로가 뚫렸고, 피정을 포기하려던 분들도 차를 돌려서 다시 꽃동네로 모였습니다. 미사로 시작된 피정은 은총가운데 진행되었고, 모두 함께 모여 안수식을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치유의 상징인 눈물을 흘리며 복된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었으며, 사이가 소원했었던 모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어떤 부부는 정말 더욱 서로가 사랑스러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늠하기 어렵고 때로는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이 태양아래에 안 보이지만 언제나 그자리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있

는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특별한 피정을 통해서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 재속회 연피정을 마치며...

7월에 CA 재속회 연피정이 있었습니다. 4기로 이강선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임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덕분에 본인의 지금이 존재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분들을 향한 사랑을 입으로 당당하게 고백하시면서, 가난의 영성을 살기를 깊이 원하십니다. 우리 재속회 선, 후배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꽃동네 영성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나가기에 다짐하며, 끝까지 꽃동네 재속회 한 멤버로서 저희 수도자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의 영성을 삶으로 살아 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New Jersey

Tel. Fax: 973-676-2364
426 Minton Pl. Orange, NJ 07050 USA
E-mail: usnj@kkot.or.kr

★ NJ 꽃동네 법인 초대 이사장 Arthur J. Bird 탄생 97년 기념미사

NJ 꽃동네 법인을 위해 지상에서 큰 모퉁이 돌과 기둥이 되어주시고, 천상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주시는 Arthur Bird의 탄생 97년(2024/7/22)를 맞아, 생가인 질렛 피정집에서 꽃동네 수도자들은 추모 미사를 봉헌하며, 감사의 정으로 고인의 천상 영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 NJ 꽃동네 새 수도자 부임

뉴저지 분원에 새로이 소임 받은 이경숙 토마 수녀님 (Sr. Thomas Lee)께서 오렌지 분원에 무사히 도착하여, 세명의 수도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였다.



★ 꽃동네 수도자 성령기도회 봉사팀(본원): 퀸즈 본당 피정봉사

한국 본원 수도자 성령기도회 봉사팀 (신상현 수사님, 김명심 수녀님, 김준수 신부님)은 이번 7/19-20 양일간 퀸즈 본당 “가정성화 피정” 지도를 봉사하였으며, 200여명이 넘는 꽃동네회원과 교우들이 참석하여 기쁨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 충만한 피정으로 하나되었다.



★ 질렛 피정집 미사 전례용 목공예 제대 봉헌

오랫동안 소망해온 질렛 피정집 전례용 제대를 이 미카엘 형제님의 목공예 작품으로 모시게되었으며,

이 제대가 완성되기까지 기도 안에 가족들이 정성을 모아 손질하고 어루만져 봉헌하여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미사(2024.7.21)를 봉헌하였다.



★ NJ 오렌지 기도실 성 요셉상 봉헌 미사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신부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요셉 성인의 생애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요셉 성인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요셉 성인 공경에 뛰어나신 은인의 봉헌으로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성요셉상을 오렌지에 모시고 축복 미사(2024.6.16)를 봉헌하였다. 감사합니다.



★ 망명온 파테마 자매 캘리포니아로 이주

일년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망명와서 “One World and One Love”의 주선으로 뉴저지 꽃동네에 머물게된 파테마 자매가 미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받게되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찾게되었다.

★ 해케스타운 농장 고추 농사 및 야채 재배 및 과수원

한해가 다시 돌아와 농사철이 되어 구슬 땀을 흘리며, 봉사자분들과 모종을 실시하였는데, 벌써 풍성하게 꽃고추와 오이, 호박, 그리고 과수원에서는 올해 아직 어설프지만, 포도와 복숭아, 앵두, 사과들이 달렸습니다. 농장과 과수원을 위해 늘 수고해주시는 양 바오로 형제님과 모든 방문 봉사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Philadelphia GRACE Project INC, “Kensington Outreach Program” 에 음식 기부

NJ 꽃동네는 필라델피아 “GRACE Project Inc”에서 실시하는 약물 중독자 및 노숙인들에게 음식과 생활 필수품 기부 및 의사소통, 길거리 청소 및 치료안 내를 해주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류를 다량 기부하였다.



★ 오렌지 타운 및 뉴욕 브롱스 지역 급식 및 나눔 봉사

오렌지 타운의 길거리에서 일용직을 구하지 못하고 떠도는 노무자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 재속회원들의 봉사와 뜻있는 봉사자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이동식 서점과 함께, 브롱스 지역 급식과 나눔 봉사가 날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렛 피정집 냉방시스템 및 설비 유지보수 봉사

무더운 여름철과 하계 피정 프로그램 준비하며, 질렛 피정집의 냉방 시스템을 INNO Mechanical 업체에서 무료 점검 및 보수 봉사를 실시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방 수도가 누수되거나 고장나 있던 것을 이 토마스 형제님께서 교체 봉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렌지 분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및 알람장치

오렌지 분원의 창고와 야외 물품 분실과 도난 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안시스

템을 보수 점검하고, 알람장치 추가를 위해 성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봉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NJ 꽃동네 “미 대통령 봉사상 프로그램 (US Presidential Volunteer Award Program)

뉴저지 꽃동네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신력있는 봉사상 “US Presidential Volunteer Award Program”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약 5명 이상의 학생 봉사자들이 지원하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동북부)

우리 죄인을 위한 가실줄 모르는 예수성심의 사랑은 저희와 똑 같은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병고와 상처와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원들은 예수성심의 지극한 사랑의 발로로 창설 특은을 받으신 오웅진 신부님의 창설자의 영성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릅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한국 본원에서 방문하신 신상현 수사님을 비롯한 3분의 수도자들과 함께 재속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꽃동네영성 피정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서 새로이 제8회 예수의꽃동네신입 재속3회원 5명의 입회식을 가지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울러 2024년 재속회 운영 자율화 시도를 위한 “지역별 소공동체 모임 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창설자의 말씀처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태우고, 하나의 물줄기가 시내가 되어 강과 바다가 되듯”, 재속회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작은 몸짓에 주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의꽃동네의 수도영성 안에 재속회원의 삶을 살아가고자하시는 분들은 회보 뒷면에 게재된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소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J: 201-230-5643)



Georgia

TEL: 770-638-1385
5732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USA
E-mail: gakkot@gmail.com

★ 모니카 성당 주임신부 방문

모니카성당 주임신부 Fr. Jack Durkin께서 꽃동네를 방문하셔서, 미사를 봉헌 해주시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복음말씀과 영성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꽃동네가족 분들을 일일이 강복해주셨습니다. 가족 분들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흐뭇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직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가족 분들과 수도자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 썩 개떡 나눔

봄철에 빼놓을 수 없는 나물 중 새순으로 올라온 썩을 캐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썩으로 만든 떡(개떡)을 빗어 나누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서투른 솜씨이지만, 정성을 다해 빗어 만든 썩으로 만든 떡(개떡)을 이웃과 나눔



에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하느님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부부봉사 방문

일손이 부족할 때 젊은 부부가 주위에 풀을 뽑아주고, 주변 정리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회 봉사

이상기온의 무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봉사오신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을 손수 해보려는 성실한 의지와, 더위나 기후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에 보답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꽃동네 가족과 수도자들이 기도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 2024 성모의 밤

5월 성모님의 달을 맞아 새로 단장한 수녀원 거실에서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녁을 손수 마련하신 자매님과, 성모님을 꽃으로 장식하시고, 마이크시설, 시 낭송, 신앙체험, 무용안무 등 도움의 손길을 보이신 모든 분들과, 성모의 밤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현관문 교체

현관문이 오래되어 부식한 것을 지켜 보시던, 안토니오 형제님께서 새 문을 Order 하셔서 깔끔하게 교체해 주셨습니다. 재능기부로 함께 도와 주신 형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가든정리

매년 꽃동네를 찾아와 봉사를 해주시는 멕시코 자매님들의 노고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가든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정에 무탈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비닐하우스 새 단장

비닐하우스를 새롭게 단장해주신 이 벨라멧다와 이 가밀로 형제자매님께서 조지아 모크(Mauk)에서 2시간을 달려와 비닐하우스에 각종 모종을 가져오셔서 심어 주시고 여러 종류의 모종의 특징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함께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더위에 온몸에 흐르는 땀에도 봉사하는 것이니 괜찮으시다 하시며, 밤 열시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GA 꽃동네 가정성령피정

이번 가정 성화 피정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시고, 피정에서 받은 은혜가 삶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1:38))



★ 종신서원 25주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신 양윤선(바르톨로메오)수녀가 이번 해에 종신서원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긴 여정 동안 오로지 주님만을 뵈고 달려왔을 양 윤선(바르톨로메오)수녀가 앞으로 남은 여정을 주님께 오롯이 봉헌된 삶이 되도록 회원님의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조지아 재속회원 모집

조지아 꽃동네에서는 재속3회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기도로써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회원님과 은인 및 봉사자 분들은 조지아 꽃동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70-678-1385, 770-871-9177, 770-403-1933)

▶ 별관 화장실과 샤워실, 정화조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공사들이 하나씩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설치공사는 마지막 검사인 Seeding & Grading을 잘 마쳤고 별관과 관련된 전기분야도 마지막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얹히고 싱크대를 설치하면 별관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겠지만 별관사용으로 캐나다꽃동네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 부활절을 맞이해 교구청에 부활 축하인사를 드렸습니다.

부활과 성탄에 관한 교구장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큰 맘 먹고 교구청에 부활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빈 손으로 가기 몇쩍어 계란 네 판을 구운 계란으로 채워 두 분의 주교님과 총대리신부님, 직원분들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삶은 계란이 아니라 구운 계란이라고 하니 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계란도 구울 수 있냐'고 묻습니다. 식감이 좋고 콜레스테롤이 적어 몸에 좋다고 구구절절이 설명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는데... 두어달 후에 만난 총대리신부님께서 구운 계란을 기억하시며 다른 삶은 달걀들도 많았지만 직원들 모두가 신기해하며 구운 계란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있는 구운 계란을 지금은 노숙인 아저씨들이 매주 1 개씩 드시고 계시네요...

▶ 4월 25일~28일까지 캐나다인 Cur-sillo 피정이 3박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소임이동을 한 후 계속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정의집 이용자를 한국인으로 제한할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봉사자와 협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3월 해밀턴교구청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디언 피정에 참가한 분들 중 꾸르실료 담당자들이 해밀턴 교구 내에도 이와 같은 피정의집이 있으면 좋겠다며 피정을 요청했고 몇 번의 답사 끝에 4일간의 피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일이나 되는 피정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하느님께서 캐나다인의 식성을 잘 아는 봉사자를 보내주셨고, 재속회원들의 봉사로 피정자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경이로운 피정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피정을 마치면서 내년 피정을 예약하는 담당자가 연신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캐나다 꽃동네 피정의집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아름다운 파티마 성모님 스테인드글라스를 기증받았습니다.(6월 13일)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후원품을 받게 되는데 이번엔 특별한 후원품(?)을 받았습니다. 한 생을 스테인드글라스를 위해 사신 한만수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저희 경당에 어울리는 파티마성모님 스테인드글라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설치이전부터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당일날 땀흘려 정성스럽게 성모님의 모습을 유리창에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나는 파티마성모님은 성상으로 만나는 성모님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태양빛과 어우러져야 그 색채가 드러나니만큼 더 자연과 친화되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안드레아 형제님의 미소가 파티마 성모님의 미소와 닮아 기뻐합니다.



▶ 한국 수도자들의 방문으로 7월 대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7월 23일 신상현 수사님, 김명심 수녀님, 김준수 신부님을 강사로 모신 대피정이 있었습니다. 대략 110여명 정도의 신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무더운 경당에서 하루 온종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한 피정을 통해 참석자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족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청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식사 준비 및 운영에 도움을 주신 재속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재속회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꽃동네는 재속회원들과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운영됩니다. 행사가 있거나 노숙인들을 돕는 일에 항상 열심히하신 분들입니다. 이번엔 오랫동안 봉사하며 꽃동네를 사랑해왔던 최주연 줄리아, 이정규 아오스딩 형제님과 곧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속회원이 되고자했던 정은주 마리아 자매님이 입회식을 통해 정식으로 재속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하느님 사랑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꽃동네에 대한 사랑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피정의집이 원활히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Food handler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 겨울을 눈치우기 여념이 없던 그 때, 어느 분이 피정의 집에 필요할 것 같다면 Food handler 링크

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엔 용감하게 강의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50여시간의 강의가 Audio script 까지 읽고 해석해가며 들으려니 장장 3개월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시험까지...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어 출력된 자격증을 보나...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 해밀턴교구청에서 주최한2일간의 Grief training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 중에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슬픔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마침 교구청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물론 원활하게 강의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건강하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슬픔의 가장 큰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 한맘성당 내 어르신들을 위한 은빛대학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맘성당 교사회 1일 피정과 1차례의 캐나디언 1일 피정 및 야유회, 매월 1회 정기 월피정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노숙인봉사를 시작하신 박은영 자매님, 노숙인들을 위한 물품을 모아주신 정하상 바오로성당 신자 여러분들, 야외정비작업에 함께 해주신 예수성심성당 순교자의 모후 뵈레시디움, 한맘성당 평화의 모후 뵈레시디움, 그 외 삼삼오오 모여서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 1) TD Bank:Kkottonnae Catholic Church of Canada
Account No. 1976 5227721,
Branch Transit No. 004
- 2) E-transfer: kkotcanada@gmail.com

한국 소식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청원 착복식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자매회의 수도자가 되기 위해 지원기를 거쳐 청원 착복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소개합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송주현(타대오),
이찬희(프란치스코)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정윤희(마리아),
옥타비아나 웰리

7/31일, 저녁 성무일도 중에 청원착복식을 가진 청원자들은 수련기를 앞두고 수도공동체에서 생활하며 수도생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도생활에 대한 갈망과 의지를 다져갈 것입니다. 수도 성소의 급감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망을 품고 ‘가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정신과 꽃동네 영성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파라과이 마누엘라 페냐 자매 “사랑의 패” 전달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꽃동네에 감사”

자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인류애를 보여주었던 파라과이의 마누엘라 페냐(94세) 자매님이 지난 5월 22-26일, 5일간 꽃동네사랑의연수원에서 진행된 행동하는 사랑학교(Love in Action School)에 참가했습니다.

마누엘라 페냐 자매님은 지난 50년간 수 백Km 떨어진 곳에서 매년 12월 성모성지순례를 오는 인디언 3천여 명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사회정리로 소외받는 계층인 인디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오랜 세월 한결같이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준 자매님은 인디언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꽃동네가 파라과이에 진출한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죽어가는 노숙인들을 모셔와 돌보는 꽃동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님은 제25회 음성품바축제 기간 중 꽃동네에서 개최하는 ‘노숙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행사에 초청해 사랑의 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누엘라 페냐 자매님은 “행동하는 사랑학교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8년 전 저를 이 학교에 초대했을 때 한국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불가능한 꿈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말하기를 여행이 너무 길어서 지칠 것이고 제 나이 때문에 너무나 긴 여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세월과 제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큰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주신 꽃동네에 감사드리며 매일 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과 축복으로 가득 찬 영을 가지고 저의 사랑하는 조국 파라과이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일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꽃동네 가족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나갈 큰 의욕을 가지고 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13회 생명대행진 2024’

낙태 없는 세상,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고 모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13회 생명대행진 2024’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광장에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주최,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 주관 하에 ‘사랑모아 함께, 우리모여 행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주교, 차희재 생명대행진조직위원장, 꽃동네 신상현 수사,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오석준 사무국장 신부, 한국남자수도자 장상협의회 유덕현 회장,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이종서 총장, 꽃동네대학교 생명문화센터장 김승주 신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꽃동네 신상현 수사는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는 ‘말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길에 온전히 자신을 바쳤고, 한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낙태방지를 위해 일찍부터 생명운동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3.8km 거리를 행진하며 낙태 반대를 회치고,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생명문화센터’ 개소

생명문화센터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된 이날 개소식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생명 최우선 가치를 세상에 천명했습니다. 생명문화센터의 개소는 생명돌봄 전문 인재양성의 신호탄이 됨과 동시에 온 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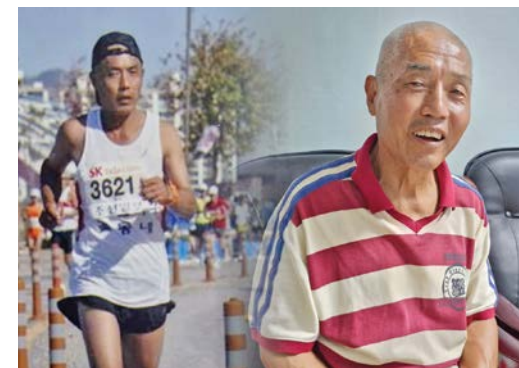
30년 장기봉사, 가평꽃동네 정덕근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귀한 인생 여정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병든 부모님을 모시다가 꽃동네를 만나 기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30여 년간 장기봉사를 해온 정덕근 형제님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과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자 어려운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다”며 꽃동네와의 첫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평생을 무급봉사로 헌신해온 형제님께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그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30여년 간 교통비, 소모품비 외에는 별도로 돈을 쓸 일이 없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나와 부자가 된 기분이다”라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한때 수도회 입회도 고민한 적이 있었으나,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자원봉사라 생각했다. 앞으로도 하느님을 섬기듯이 가족들을 섬기겠다”고 하시며

“하느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꽃동네에 묻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라고 ...



미국 꽃동네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 회원번호는 회원증에 적혀 있습니다.
- 회비를 보내주실 때는 Check에 회원번호를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비를 내실 때마다 회원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수납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 I.R.S.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꽃동네 회원이 되시려면

1. 누구나 다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
 2. 회비는 한 달에 \$1 이상이면 됩니다.
(6개월이나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3. 신규로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와 첫 달 회비를 보내주세요.
- **우편:** 회원가입신청서 + 첫 달 회비
(check : Payable to Kkottongnae Inc.)
 - **비 우편:**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로 회원가입 신청서 발송 후 **Zelle**을 이용하여 회비 송금
 - **전화** 이용 또는 꽃동네 **방문** 후 가입도 가능
4. 회원 한 분씩만 더 인권해 주세요.

미국 꽃동네에 입소하시려면

-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 연고자가 없는 분, 오갈 데 없는 분, 어려운 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을 먼저 모십니다.
- *회원님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면 연락해주세요.

■ **LA 꽃동네: LA Kkottongnae**
3542 Norton Ave, Lynwood, CA 90262 USA
(Tel) 310-764-5331
E-mail : usla@kkot.or.kr

■ **테메쿨라 꽃동네: Temecula Kkottongnae**
37885 Temecula Pkwy, Temecula, CA 92592 USA
(Tel) 951-302-3400
E-mail : ustmc@kkot.or.kr
www.tememculakkottongnae.org

■ **NJ 꽃동네: NJ Kkottongnae**
426 Minton Pl, Orange, NJ 07050 USA
(Tel) 973-676-2364
E-mail: usnj@kkot.or.kr
https://njkkottongnae.org/

■ **조지아 꽃동네: GA Kkottongnae**
5732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USA
(Tel) 770-638-1385
E-mail: gakkot@gmail.com

■ **캐나다 꽃동네: Canada Kkottongnae**
6096 Second Line, Orton, ON, Canada (L0N 1N0)
(Tel) 647-808-3989
E-mail : kkotcanada@gmail.com

■ **아이티 꽃동네: Haiti Kkottongnae**
Rte Nationale #3, Beudet-Meyer,
Croix des Bouquets, Haiti
(Tel) 509-4398-2207

■ **꽃동네 본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 (우27732)
(Tel) 043-879-0151(~9) (Fax) 043-877-4575

■ **꽃동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kot.or.kr>

꽃동네회원 가입신청서				회원번호 No.	
성명 Name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세례명 Baptismal Name	
주소 Address	자택 Home				
전화번호 Phone	자택 Home		휴대폰 Cell		
소속성당 Parish				추천인성명 Recommender	
비고 Other	Email				